



국가생존기술 글로벌 리포트

2022년 6월 2일 제7호

웹사이트에서 보기



물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폭염과 홍수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홍수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과 수십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심한 기상 이변 현상이 남아시아에서 더 흔해지면서 폭우가 마을 전체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기후 과학자들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점점 더 빈번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벵골만이 열대 바다와 근접해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한다. 인도 열대 기상 연구소가 1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 온도 상승은 인도를 비롯한 그 주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매우 건조한 기후" 및 다른 지역의 "강우량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다.

출처: <https://www.nytimes.com/2022/05/22/world/asia/floodin-g-india-bangladesh.html>



자원

바이오경제와 생물다양성

세계경제포럼(WEF) 생물다양성 전문가 네트워크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기후 조절 및 수분(受粉)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 비용은 2050년까지 연간 1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 GDP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영국은 BNG(Biodiversity Net Gain) 의무화를 결정했으며, 현재 몇몇 국가 및 기업들은 BNG를 채택, 생물다양성 향상을 목표로 자연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유지하며 개발 및 토지 관리에 접근하고 있다.

출처: <https://intelligence.weforum.org/topics/a1G0X0000062jZ3UAI/key-issues/a1G0X0000057INaUAM>



재난

위험에서 복원력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근본적인 취약성과 불평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치명적 결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예방과 위험경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UNDRR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차 UN 재난 위기 감소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2022) 회의에서는 '위험에서 복원력으로(From Risk to Resilience)'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재난위험 경감 방안, 재난 위험 거버넌스 강화, 모두를 위한 재난위험경감 등을 모색했다.

출처: <https://www.undrr.org/event/seventh-session-global-platform-disaster-risk-reduction-gp2022>



안보

美

국방 분야 메타버스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중전 실감 시뮬레이션, 증강 현실 디스플레이, Project BlueShark(가상선박 운항시스템), Project Avenger(미 해군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VR을 이용한 만성 통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프로그램, AR 기술을 이용한 DARPA AI 공중전 프로젝트, EpiSci 스타트업이 만든 AI 탐견, Perceptually-enabled Task Guidance라는 AI 조수를 만드는 DARPA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https://www.wired.com/story/military-metaverse/>



식량

디지털 농업의 혜택을 모두에게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기존 농업 관행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농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디지털 공공재 연합 DPGA(Digital Public Goods Alliance)에 가입했다. 디지털 기술 문맹 퇴치,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FAO 디지털 포트폴리오 내에서 잠재적 DPG를 식별하고, FAO 디지털 공공 상품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공공재(DPG): SDG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데이터, 공개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표준 및 공개 콘텐츠)

출처: <https://www.fao.org/newsroom/detail/bringing-the-benefits-of-digital-agriculture-to-all-fao-joins-the-digital-public-goods-alliance/en>



에너지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운 수소'

최근 독일은 세계적 정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였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수소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현재 수십 개국이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거나, 또는 발표할 예정이다. 운송과 저장 단계에서 손실이 없는 수소는 사막의 태양광 패널보다 약 2배의 효율이 예상된다.

출처: <https://www.bbc.com/news/business-61406077>



인구

가치있는 노년을 위한 과학의 청사진

19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대수명은 약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노인들이 목적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학의 진보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 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는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일과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고, 환경, 라이프스타일 및 의료 시스템을 보다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인간의 부담의 아닌 혜택으로서의 장수를 제시했다.

출처: <https://intelligence.weforum.org/topics/a1Gb000000LHRxEAO>